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연준, 코로나 19 와 저물가 속 금리 인하 전망
 - ◇ (초점)-추경 국채, 채권시장 영향 놓고 '갑론을박'..수급이나 펀더멘털이나
 - ◇ (초점)-한국 2 월 수출 코로나 19 영향 현 실화..정부도 "앞으로 더 악화" 예고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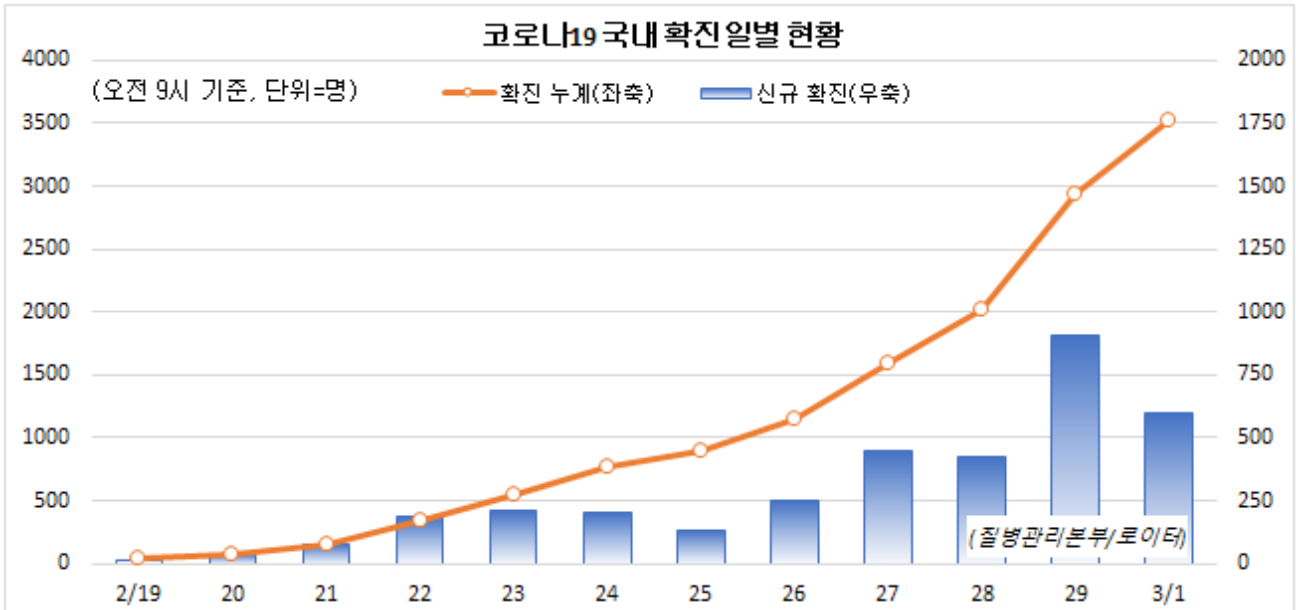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이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방역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이 자리를 피하고 있다. (로이터/김흥지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2월2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13.7	-0.4%	-4.7%	-3.5%	유로	1.1025	1.7%	-1.7%	-2.3%
100엔 대비	1,110.3	-2.6%	-4.3%	-4.4%	엔	108.07	3.2%	0.5%	0.9%
유로 대비	1,323.2	-1.1%	-2.2%	-1.3%	위안	7.0045	0.3%	-0.6%	-1.3%
위안 대비	171.62	0.1%	-3.4%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5,409.36	-12.4%	-11.0%	22.3%
코스피	1,987.01	-8.1%	-9.6%	7.7%	나스닥	8,567.37	-10.5%	-4.5%	35.2%
코스닥	610.73	-8.6%	-8.8%	-0.9%	S&P500	2,954.22	-11.5%	-8.6%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09.01	-6.6%	-7.9%	15.8%
국고채 3Y	1.104%	-7.8bp	-25.6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80%	-8.7bp	-30.0bp	-40.4bp	미국채 2Y	0.931%	-42.4bp	-63.0bp	-93.7bp
국고채10Y	1.333%	-11.0bp	-35.0bp	-26.5bp	미국채 10Y	1.163%	-31.0bp	-74.7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4.76	-16.1%	-26.7%	34.5%	한국 5Y	33.4bp	10.1bp	12.3bp	-17.0bp
금(현물)	1,584.74	-3.6%	4.5%	18.3%	일본 5Y	22.2bp	7.8bp	4.5bp	-4.0bp
TR상품지수	2,379.60	-1.8%	-4.3%	4.8%	중국 5Y	47.3bp	13.1bp	16.7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심각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행동수칙



일반국민

0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0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0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0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0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0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0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0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0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0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0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0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 ∨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0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0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주요 주간 일정

<3월 2일(월)>

- IHS 마켓 한국 2월 제조업 PMI(09:30)
- 기재부, OECD 중간 경제전망(19:00)
- 한은, 2019년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12:00)

<3일(화)>

-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한은, 2019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08:00)

<4일(수)>

- 한은, 2월말 외환보유액(06:00)
- 통계청, 1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 한은, 2019년 4/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12:00)

<5일(목)>

- 한은, 1월 국제수지(잠정)(08:00)

<6일(금)>

- 특이일정 없음

<8일(일)>

- KDI 경제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3월 2일(월)>

- 일본, 2월 외환보유고 (2~6일, 8:50)
- 일본, 2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9:30)
- 중국, 2월 차이신 제조업 PMI 확정치 (10:45)
- 유로존, 2월 마켓 제조업 PMI 확정치 (18:00)
- 미국, 2월 전미 차량(트럭) 판매 (2~6일, 23:00)
- 미국, 2월 마켓 제조업 PMI 확정치 (23:45)
- 미국, 1월 건설지출 (자정)
- 미국, 2월 공급관리자협회(ISM) PMI (자정)

<3일(화)>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결과(12:30)
- 일본, 2월 소비자신뢰지수 (14:00)
- 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9:00)

- 유로존, 1월 생산자물가 (19:00)
- 유로존, 1월 실업률 (19:00)
- 미국, 2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뉴욕지수 (23:45)

<4일(수)>

- 일본, 2월 서비스업 PMI (9:30)
-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2월 마켓 서비스업 PMI 확정치 (18:00)
- 유로존, 1월 소매판매 (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2월 ADP 전국고용동향 (22:15)
- 미국, 2월 마켓 서비스업 PMI 확정치 (23:45)
- 캐나다 중앙은행(BOC) 금리 발표(자정)

<5일(목)>

- 연준 베이지북 발간(4:00)
- 미국, 2월 챌린저해고건수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22:30)
- 미국, 4분기 노동비용 수정치 (22:30)
- 미국, 1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자정)
- 미국, 1월 공장주문 (자정)

<6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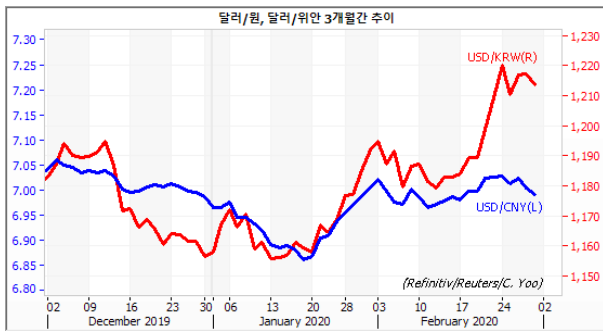
- 일본, 1월 가계지출 (8:30)
- 일본, 1월 경기동행/선행지수 (14:00)
- 미국, 2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22:30)
- 미국, 2월 실업률 (22:30)
- 미국, 1월 무역수지 (22:30)
- 미국, 1월 도매재고 수정치 · 도매판매 (자정)

<7일(토)>

- 미국, 1월 소비자신용 (5:00)
- 중국, 2월 외환보유고 (17:00)
- 중국, 1-2월 수출입 (미정)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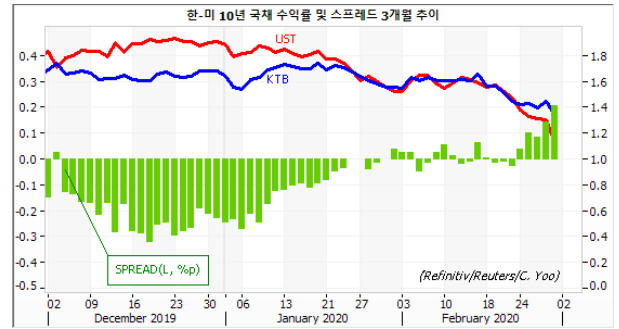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의 '판데믹' 양상이 짙어지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이 연일 출렁이고 있어 이번 주 달러/원 환율도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90-1220 원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올렸다.
- 지난주 뉴욕 주식시장 다우지수는 12% 이상 추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고, 그 영향으로 주요국 증시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 이번 주 시장 참가자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을 가능하기 위해 한국은 물론 유로존, 중국, 미국의 제조업 PMI를 비롯한 미국의 2월 고용동향을 주목할 전망이다.
- 다만 이전처럼 달러/원 환율이 일방적인 상승세를 보일지는 의문이다. 달러 약세 때문이다.
-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3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지면서 달러 약세 압력이 거세지고, 이에 달러/원 환율은 최근의 상승분을 급하게 되돌리고 있다.
- 코로나 19 전개 양상과 더불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 달래기와 이에 따른 미국 증시 반응이 이번 주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 하지만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코로나 19가 국내외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면 달러/원 환율은 언제든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 심리가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흐름이 지배하면서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 리스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에 대한 우려와 국내외 당국의 개입 기대감 속에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지난 달 28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긴급 성명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는 경제 활동에 진화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며,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준의 예정에 없던 성명 발표는 그만큼 상황이 다급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 이번 주 시장은 결국 연준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의 개입 기대감이 이전처럼 글로벌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지난주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하락했던 미국 증시가 자율 반등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이번 주에는 줄줄이 발표되는 주요국의 2월 경제 지표가 관심사다. 2일과 4일에는 각각 미국의 ISM(공급관리협회)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된다. 실제 발표 수치가 전망치를 밑돌 경우 시장의 반응이 더 과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 2일에는 중국의 2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와 비제조업 PMI가 발표된다.
- 통계청은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3일 발표한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연간 국민소득을 발표한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초점)-연준, 코로나 19 와 저물가 속 금리 인하 전망

샌프란시스코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기금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이미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 27 일(현지시간) CME 그룹의 페드 위치에 따르면 연준이 이르면 다음달 금리 인하를 시작해 9월까지 75bp 를 인하할 가능성은 54% 가량 반영됐다.

그렇게 되면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트레이더들은 26 일에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불과 33%로 보았다. 그러나 이란과 이탈리아 등지에서 신규 확진자가 중국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와 전세계 지도자들이 폭넓은 확산에 대비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은 코로나 19의 경제적 위협에 대부분 관망세를 취해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7일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충격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직 그 지점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은 인하 예상과 달리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다른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다만 관리들은 추가 행동에 나서기에 앞서 경제지표의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낮아, 경제적인 충격에 대한 대응이 효과를 가지려면 더 강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27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이며 인플레이션이 하방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데 "정책결정자들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례적인 경기대응책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 에반스 총재는 연준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연준의 컨센서스를 재확인했다.

◆ 바이러스로 타격 입고 있는 기업들

일부 미국 대기업들은 코로나 19로 이미 재정이 악화되고 순익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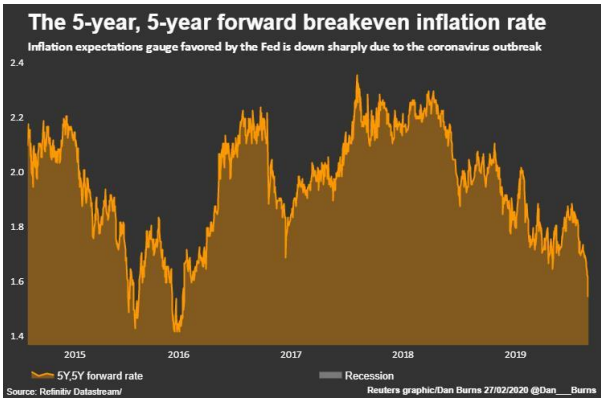
베스트바이는 27일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의 둔화를 이유로 연간 순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애플은 지난주 중국내 생산이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세계 아이폰 공급량이 감소해 1분기 매출 목표에 미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관리들이 2020 도쿄올림픽 관계자들과 논의를 갖고 있지만,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올림픽이 취소되거나 개최지가 변경된다면 일본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가 주요 주가지수들은 27일에도 급락세를 지속했고, 19일 기록했던 장중 사상 최고치에서 10% 이상 하락했다.

BMO 캐피탈마켓츠의 존 힐 금리 전략가는 "지표에 의존하고 싶다는 연준의 바람은 시장 심리에 무릎을 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는 인플레이션 기대치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리처드 클래리다 연준 부의장은 25일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연준의 물가 안정성 임무와 일관된다고 여겨지는 레인지의 하단"에 있다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JP 모간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19가 계속해서 확산된다면 인플레이 기대치 하락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유가 하락이 미국 제품 및 서비스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초점)-추경 국채, 채권시장 영향 놓고 '갑론을박'..수급이나 펀더멘털이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정부가 11조 6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채권시장 참가자들도 국채 발행량 확대가 금리에 미칠 영향을 놓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일부에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량 확대가 수익률곡선(커브)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중국 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판데믹 국면에선 장기 펀더멘털을 감안한 커브 플래트닝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 확정으로 국고채 발행량 월별 0.5~0.8조원까지 늘 수도

정부는 28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출 기준 11조 6000억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정부는 11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3월 중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추경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 후 2개월 이내 75% 이상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속도전 방침은 추경 편성이 국고채 발행량에 빠르게 반영될 것이라는 의미기도 하다.

추경 발행으로 늘어날 월별 국고채 발행 규모에 대해 시장에선 5000억 원에서 8000억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올해 월별로 국고채 12조 5000억 원~13조 원 정도가 기본 발행량이라고 했을 때 평균 발행량이 13조 원~13조 80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가 커브 정상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혀 온 만큼 국고채 발행 증가분은 장기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통위 다수 위원이 실효금리 하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물량 부담이 가중될 경우 커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외은 지정 트레이딩헤드는 "한은의 경기 판단은 국내 경제가 2분기에 브이자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3월 중순에 우리가 현재의 중국 분위기 정도 되면 4월에도 기준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여기에 추경 편성으로 월별 발행량이 최소 5000억 원 이상 늘어나면 금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물량, 결정적 변수 아니다' 반론도..장기 금리 추세 하락 가능성

하지만 추경 물량 자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 19 사태가 중국 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세계 경제의 중장기 펀더멘털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A증권사 채권본부장은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19 사태의 태풍의 눈이지만 앞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시장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다 보니 심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고 이런 심리가 지배하는 현시점에 수급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국고채 발행물량과 관련해 작년부터 힘들다고 했고 추경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며 "0%대 기준금리 시대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세계 경제의 중장기 펀더멘털을 봤을 때 장기금리 수준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B 증권사 채권운용부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미국 금리는 50~60bp 빠졌는데 국내 금리는 20~30bp 하락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인하 여력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효금리 하한에 대한 고민이 큰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장기 채권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시장은 그동안 미리 움직여 왔다"며 "작년에는 비경쟁 옵션 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시장 수급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는데 올해는 10년물 입찰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지며 '딤인더머니'가 나온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옵션 플레이는 양방향일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시장의 특성상 통으로 완만하게 시장이 움직일 때 발행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며 "향후 장기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국면이라면 옵션 발행 확대 등으로 물량 부담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점)-한국 2월 수출 코로나 19 영향 현실화..정부도 "앞으로 더 악화" 예고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지난달 한국 수출이 총액으로는 15개월 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세부 내용 곳곳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내상이 감지되면서 향후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수출은 412.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41.2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9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2월 수출입 수치 모두 로이터 전망치(수출 +3.4%, 수입 0.0%)를 웃돌았고 지난 1월 수출(-6.1%)에 비해서도 크게 개선됐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수출과 수출 물량 개선 등 긍정적인 지표도 확인됐다.

D램 고정가격이 2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반도체 수출은 9.4% 늘어 1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아울러 반도체·일반기계·무선통신기기 등 20개 주요 품목 중 14개 수출이 늘어 2월 수출 물량은 전년비 7.3% 증가하며 13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 곳곳에 코로나 19에 따른 여파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향후 수출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일평균 수출 급감 적신호

지난 1월 14개월 만에 늘어(+4.8%) 20억달러대를 회복했던 일평균 수출이 2월에는 11.7% 급감한 18.3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금액으로도 2016년 8월(16.7억달러) 이후 가장 적다.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은 6.6% 줄었고 일평균 기준으로는 21.1%나 떨어졌다.

전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2월 중국 제조업 활동은 35.7(로이터 전망 46)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수출 신규주문은 28.7로 추락했다. (Full Story)

산업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 춘절 기간 연장에 따른 성·시별 조업 제한 및 가동을 저하로 대중수출에 있어 실질적 조업일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2월 수출에 있어 대미 수출(+9.9%)이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최근 코로나 19가 '팬데믹' 양상으로 번지면서 향후 한국 수출 개선 모멘텀이 이어질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확진자가 늘면서 3-4월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수출이 더욱더 감소할 것"이라면서 "'판데믹' 두려움 때문에 전 세계 수요도 줄고 있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를 제외하고는 석유화학, 기계류 등 대부분 주력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는 3526 명으로 하루 사이 595 명이나 급증했다.

투자은행 ING는 지난달 29일 보고서에서 "3월에 중국 제조업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는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지역에서 공급체인이 이미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신규주문은 낮은 수준에 머물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전망했다.

▲ 정부도 "코로나 19 영향 3월부터 가시화" 예고

정부도 코로나 19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여파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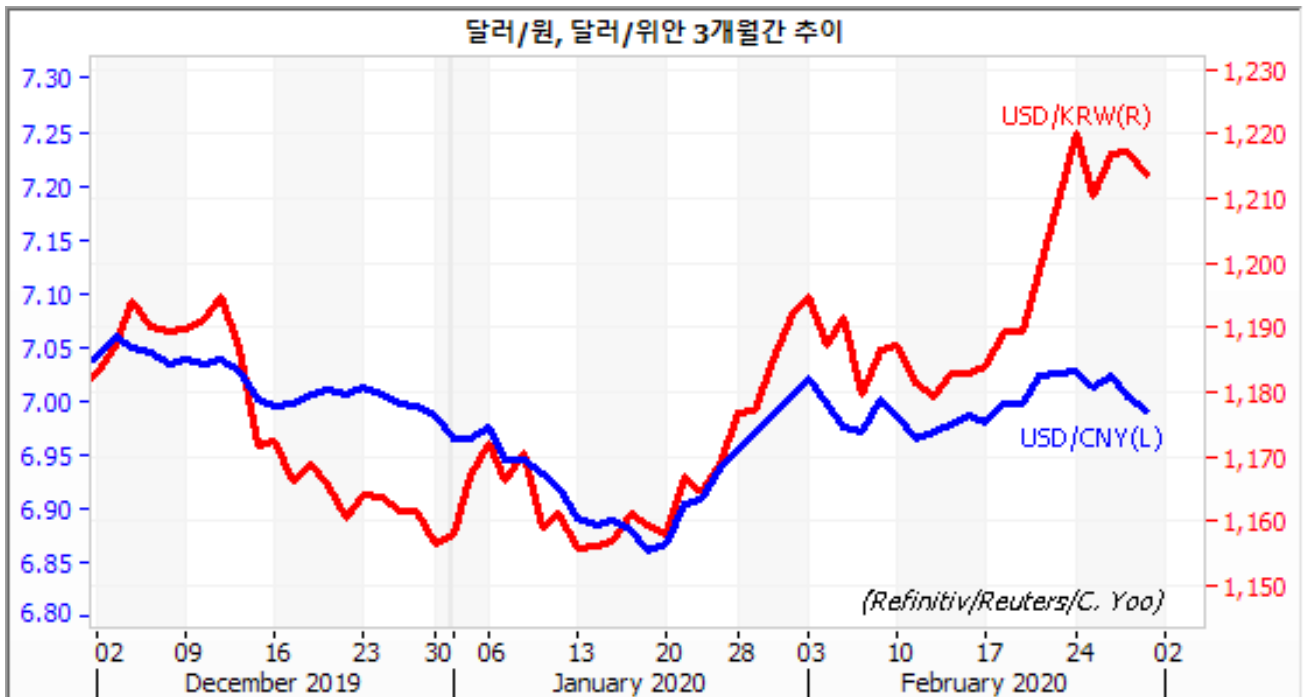
정부는 과거 사스 때보다 중국의 경제 규모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많이 증가하고,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 19 확산 영향이 사스 때보다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는 신규계약이 이뤄지는 3월부터 코로나 19 확산 영향이 2월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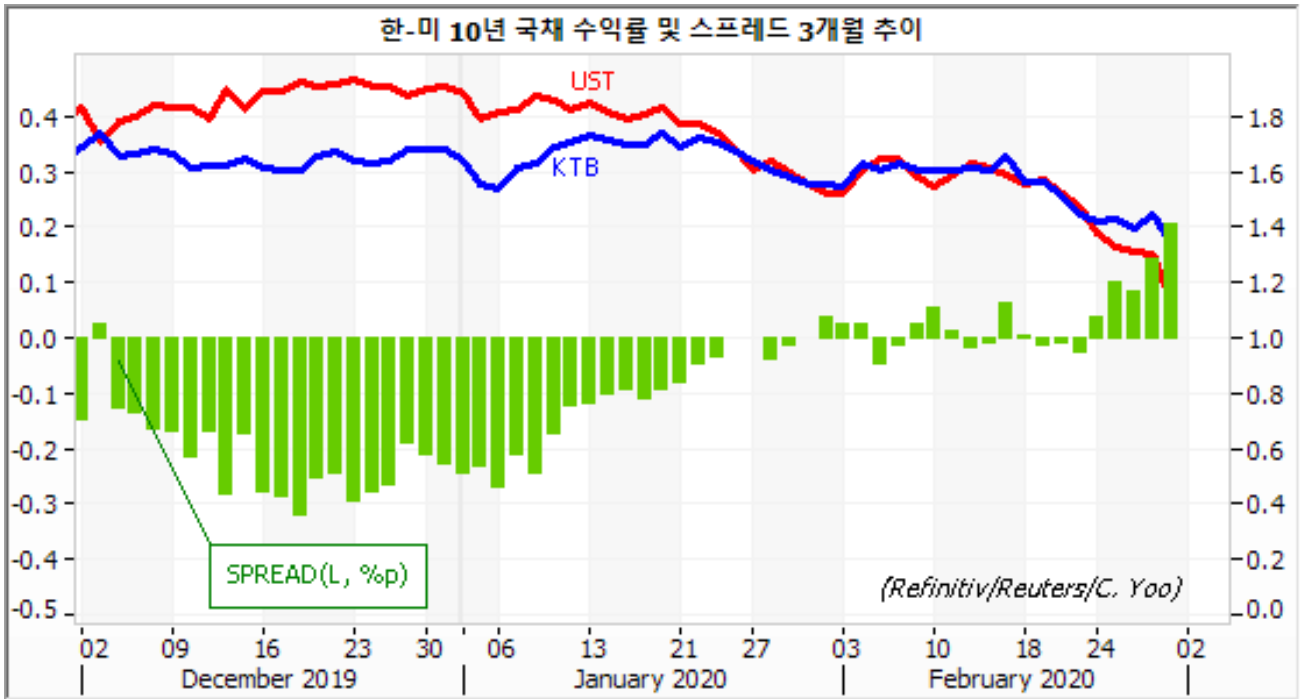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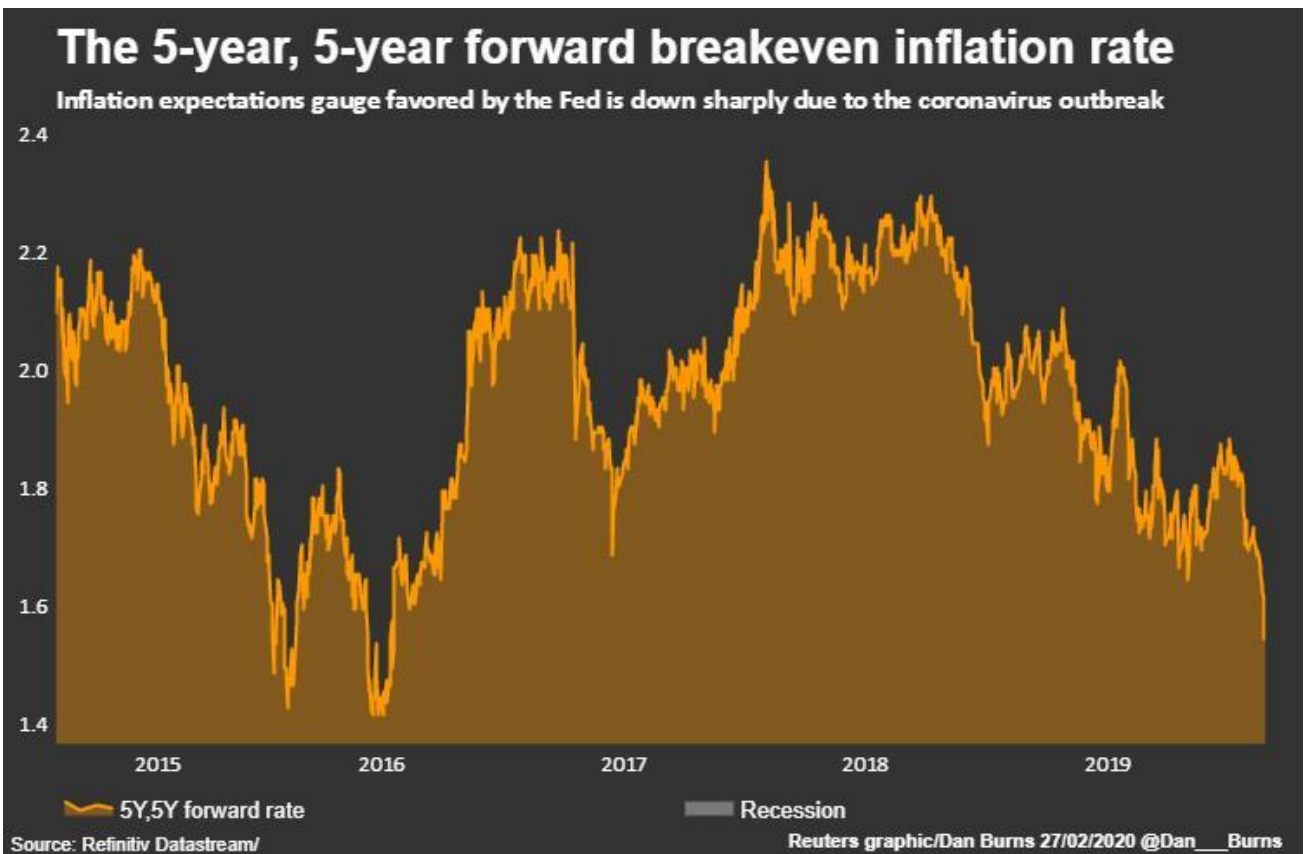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